

**법규** 잘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은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 법구경 -

# 현대 불교

시사전문 02-745-8503  
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041-734-2680  
대진신문사 연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0월 15일 월요일 (주간) 제 339 호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교계 인터넷 적응력 부족

본사(本社)의 붓다뉴스팀이 최근 국내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인 DB 구축을 위해 유관 사이트들을 서핑하며 전통사찰에 대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다. 안타깝게도 850여 전통사찰을 일목요연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갖춘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운영이 잘 되면 그렇지 않은 인터넷 상에서 직접 찾아 갈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갖춘 전통사찰도 1백여 곳을 조금 넘을 뿐이다. 이것이 인터넷 시대에 대한 불교계의 적응도라면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석 달 전에 발표된 한 조사기관의 '국민 인터넷 사용 실태분석'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로 추산된 바 있다. 불자의 절반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 불자들이 즐겁게 드나들 수 있는 '답당'은 소수에 불과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을수록 세련된 디자인과 알찬 내용을 담은 불교관련 사이트도 늘어나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법당 짓기 불사가 경쟁이라도 벌어질 때를 바라는 것이 불자들의 마음 아닐까.

물론 사이트가 많이 개설되는 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세가 올바른 인터넷 불교 문화를 창조해 낼 때 사이버 법당의 가치가 돋보일 수 있기 때문. 현재 개설된 불교 사이트 200여 곳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한계와 인력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이유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영영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에 대한 마인드의 부재다. 불교계라고 해서 결코 외면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IT산업의 기본 수단이 되고 있는 인터넷은 포교와 정보 교류, 각종 중무 행정의 총아다.



각 종단의 행정기관이나 교구 본사급의 큰절 혹은 유력 단체들이 운영하는 일부 사이트들이 이미 그 효력을 실감하고 있지 않은가. 만사지만 일자언정 누군가는 IT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민의 당사자는 남이 아닌 바로 '나'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인터넷은 생활이고 생활과 유리된 불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임연태(뉴미디어부장)

## “한·중 불교 활성화 공동 노력”

정대 스님 - 리란칭 부총리 합의... 선불교 교류도 정례화

### 조계종 대표단 中 공식 방문

조계종이 중국정부와 불교를 통한 양국 우호협력 증진과 중국 불교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단장 정대 총무원장) 20명은 지난 11일 영빈관인 베이징 중南海 회견장에서 리란칭 중국 부총리와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선불교 교류뿐 아니라 우호방문도 정례화 시키기로 했다.

이날 공식 회담에서 정대스님은 "경제발전이 중요하다 보면 문화가 소홀해지기 마련이다"며 "불교는 한국에서도 호국불교라 불릴 만큼 도전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의 진흥이 중국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중국정부가 불교문화 진흥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리란칭 부총리는 "중국인민이 추앙하는 신라왕자 김고각 스님상 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불교 대표지도자인 정대스님을 만나 뵈게 돼 기쁘다"며 "한국의 조계종과 중국 종교국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조계종이 중국불교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양국 불교교류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리란칭 중국 부총리는 11일 영빈관인 중南海 회견장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불교 활성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대표단은 10일 국민관인 조어대에서 업소문 중국 종교국장 만나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일본 총리의 아스카신사 참배 반대, 양국 불교 활성화에 한 중 불교계가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업소문 국장은 "장제민 주석과 주중지 총리도 불교경연에 깊은 조예

가 있다"며 "중국은 경제건설 과정에서 한국 경제발전을 모델로 하여 배운 경험이 있는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정신문화, 특히 한국불교문화를 따라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 총무원장은 "빠른 시일 내 중국정부 종교국, 불교협회 관계자들을 한국에 공식 초청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업소문 국장은 "한국불교계에서 초청하면 꼭 방한 하겠다. 중국 종교국, 불교협회와 조계종이 방문교류를 자주 갖자"고

화답했다.

중국불교협회 외사사부장 보장스님은 "중국정부가 조계종 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중국불교계의 위상을 높여준 획기적인 일이었다"며 "정대스님의 중국방문으로 인해 양국불교 교류가 강화되고 중국불교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계종 대표단에는 총무원장 정대, 전 포교원장 정현, 전 총회회장 정희, 호계원장 원서, 총회회장 지하, 총회 부의장 명진, 총무부장 원택, 사회부장 양산, 기획실장 현고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과 종진스님 20명이 참가했다. <관련기사 3면>

“문화재 국고보조금 중단 관리·감독 강화”  
조계종 성보보존위 회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보수 국고보조금과 관련, 불교계의 이미지 개선과 왜곡된 외부의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예산 집행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열린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회의에서 성보보존위원들은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잡음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에서부터 종단이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현재로서는 지방 사찰이 종단에 보고만 하는 수준이라 합리적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보수 범위, 보수 내역 등에 관한 종단 차원의 큰 틀을 마련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총무원 문화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계종 정기총회 11월 1~15일 연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지하는)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무원 1층 회의실에서 제 152회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사면 복권 관련 종원 개정 △본당금납부관련법 개정 △사찰에산회계법 제정 △종립학교관리법 개정 △원로회의법 개정의 건등 총헌종법 개정과 2546년도 중앙총무원 예산안 승인, 2545년도 총무감사 보고, 중앙승가대 안양화사의 건 처리결과 보고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 장군죽비

- ◇한국불교, 만리장성 너머에 정법의 당간 세운다. 겹대기가 아닌 알맹이가 과연 전환한 한가를 먼저 살피자. (1-3면)
- ◇위기의 지구가 보내는 긴급 구조 요청. '어디 환경보살 살나요?' 물 한방울에도 불성이 깃들여 있다는 것 아시죠? (4-5면)
- ◇'주 5일 근무 한다'고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불자 100명 중 77명, 나는 공부하러 신사로 간다. (8면)
- ◇부모·자식 종교 불일치 불교가 가장 심하다. 자식이 달고 싶은 불교 신자가 이렇게 적었는가. (27면)

## 불자 86% “주 5일 근무제 찬성”

### 일간 '붓다뉴스 닷컴' 네티즌 581명 설문

네티즌 불자들의 다수가 정부가 추진 중인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본지가 일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 닷컴(www.buddhanews.com)'을 이용해 실시한 '주 5일 근무제 관련 네티즌 불자 인터넷 설문'에서 불자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법회나 수련회에 참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행생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20대~50대 네티즌 불자 581명이 응답했으며 이중 86%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 가운데 18%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에도 지금의 수행생활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수행생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견은 3%로 나타났다. 또한 네티즌 불자들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불교계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의 마련', '불교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 '사찰안내 및 홍보자료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인터넷 설문조사에는 30대~40대 네티즌 불자의 참여율 68%이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 네티즌 불자의 응답률도 10%나 됐다. <관련기사 8면>  
이은자 기자 eejee@buddhapia.com

창간 7주년 특집 28면 발행	
환경좌담 '지금은 생명운동시대'	4·5면
'21세기는 불교의 시대' 현황과 과제	7면
'주 5일 근무제' 불자네티즌 설문	8면
재가불교운동 10년 박광서 씨-김동훈 씨	9면
IT기획 사이버 스타 스님들	12면
군법당 세운 전역 군중병들	26면
선농일치 '일과 깨달음 도량'	27면

佛法の 진리를 향한 민음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 탁자 단집 만큼은 전문업체에 맡기 십시오

- \*포각부 - 불상, 시전상, 안신상, 목탁와
- \*목공부 - 탁자, 단집, 경탁 와
- \*건축부 - 전통, 현대의 건축

佛事시공 전문 · 담채 도색 유일 업체

## 대한 불교 예술원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545-5  
TEL : 031-542-3296 / FAX : 031-543-1686  
사 장 한성용 (011-336-5200)

- \*석공부 - 불상, 석동, 부도, 탑
- \*외공부 - 단경, 명와, 담계




